그래, 대질조사로 결백을 입증하고 싶어해.

진서연의 진술과 달리 자기는 피해자들을 세뇌시킨 적이 없대.

본인은 그냥 클럽만 관리했을 뿐이고,

진서연이야말로 지인들을 클럽으로 끌어들인 장본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.

하!
뻔뻔하군요!

당장
대질조사하는 건 무리에요!
회복한지 얼마 안됐으니
좀 더 안정을...

만나볼게.

서, 서연아...!

to be continued...

당연히 발뺌할거라
생각했어.

피할 수 없는 조사라면...,
빨리 끝내는 게 나아.

하, 하지만...!

내가 요즘
어떤 마음으로 버티는지
잘 알잖아?

부탁이야...
빨리 이 악몽에서
해방되고 싶어.

.....

취조실

덕분에
쇠고랑도 차보고,
재밌는 경험 하네?
후후후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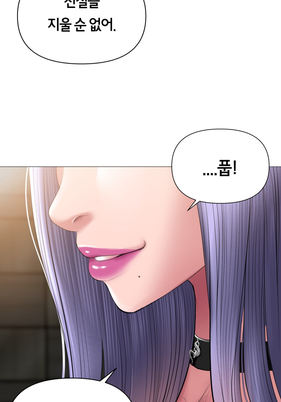
.....
얘긴 대충 들었어.
니가 저지른 잘못,
전혀 인정하지
않았다며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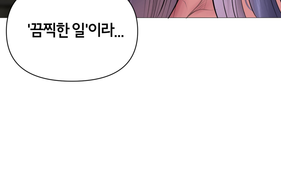
당연하지.
없는 죄를
만들어낼 순 없잖아?

잔머리
굴리지마.
그래봤자 넌
절대 못 빠져나가.

뚝뚝히
기억하고 있어.
우리가 얼마나
끔찍한 일을 벌였는지.

아무리
손바닥으로 하늘을
가리려 해도...


진실을
지울 순 없어.


....풉!

'끔찍한 일'이라...

중요한건
쏙 빼놓고 얘기하네?

... 뭐?!

너가
얼마나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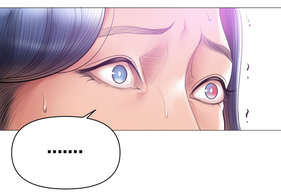
!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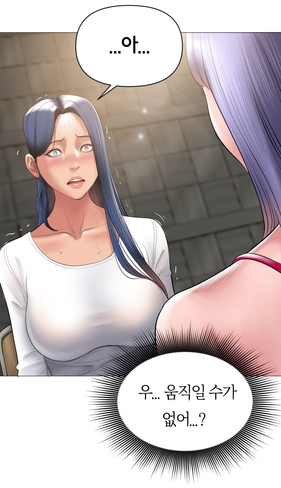
그 일을...

좋아했는지
말야...

꾸
욱
따
아...!
직

뭐... 뭐야?!
어질
어질
이...
이게 무슨...?


.....


...아...
우... 움직일 수가 없어...?

쿠쿠쿡...

경찰이 대질조사를 허락하는 순간 확신했어.
쩌걱
쩌걱

너를 세뇌시킨
장본인이 나라는 걸
찌걱
찌걱
경찰은
전혀 모르고 있다.

아마 내게 당한 기억이
복구되지 않아
덜덜
덜덜
너는 모든 게
김용의 소행이라고
진술했겠지.

이런 날을 대비해서
네게 암시를
걸어뒀어.

세뇌가 풀릴 경우,
내가 키워드를
말하며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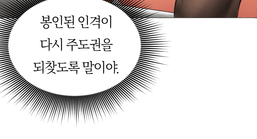
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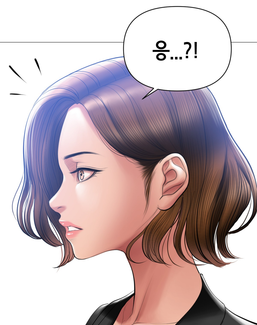
욱

하...윽...♡
움찔

너의 성감대를
자극하면...

푹
푹
푹


봉인된 인격이
다시 주도권을
되찾도록 말이야.


응...?!